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고백, 신조, 전통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38장 '고백, 신조, 전통', 421~430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전통'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정리합니다. 사도가 넘겨준 복음이라는 좋은 전통이 있고,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해석을 성경 자리에 올린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 교회가 말하는 '기록되지 않은 사도 전통'을 다룹니다. 그런 가르침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으로 교회를 다스리기로 하셨으므로 오늘 그것을 권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답합니다. 그다음 피할 수 없는 좋은 전통(예배 순서, 삼위일체 용어)과 피해야 할 '전통주의'를 나누고, 신조와 신앙고백서의 네 가지 목적을 살핍니다. 앞의 세 목적(교육·증언·이단 경고)은 기꺼이 받습니다. 네 번째 목적, 곧 서명으로 정통을 지키는 일에는 회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조는 성경 아래의 '이차적 기준'이고, 성경과 일치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정리합니다.

📜 절별 정리

📜 1. 전통이란 무엇인가 —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

이 장이 다루는 것은 교회 안에서 권위를 얻어 온 문서와 관행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들을 성경보다 낮게 봅니다. 반면 로마가톨릭교회는 전통을 성경과 같은 자리에 둡니다. '전통'으로 옮기는 헬라어 파라도시스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내려온' 말이나 관행을 뜻합니다. 신약은 두 종류의 전통을 구분합니다. 좋은 전통은 계시입니다. 성부가 아들에게, 아들이 사도에게, 사도가

사람에게 넘길 책임이 있습니다. 나쁜 전통은 바리새인의 전통입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 체계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는 조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성경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1. 전통 = '넘겨받아 내려온' 말과 관행
2. 좋은 전통은 사도가 넘긴 복음, 지금은 성경에
3. 교회의 책임: 순종, 보존, 다음 세대 전수
4. 나쁜 전통은 사람 해석을 성경 자리에 둔 것
5. 나쁜 전통은 말씀을 폐하고 짐을 지운다

> **마태복음 11:27**
> 성부가 아들에게 넘긴 계시, 좋은 전통의 출발점
>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 **고린도전서 2:9-10**
> 감추어졌던 신비가 성령으로 사도에게 계시됨
>
>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 **고린도전서 15:2-3**
> 사도가 받은 복음을 교회에 넘겨줌
>
>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6

받은 전통대로 행하라, 순종의 책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베드로후서 2:21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일에 대한 경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디모데전서 6:20

맡긴 것을 지키라, 보존의 책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유다서 1:3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디모데후서 2:2

충성된 사람에게 넘기라, 다음 세대로의 전수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가복음 7:13

>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3:4

지나친 권위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됨

>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 2. 기록되지 않은 사도 전통? — 로마 교회의 주장

로마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들의 참된 가르침이 말로 전해져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앞부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정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경 목록)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말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조차 전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후 60년에 살았다면 세례의 방식과 대상, 천년왕국에 대해 바울에게 직접 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구두 가르침은 기록된 가르침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두 전통이 아니라 책으로 교회를 영원히 다스리기로 하셨고, 사도의 구두 가르침을 다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어떤 주장이 정말 사도의 구두 전통에서 왔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통의 주장이 성경만큼 권위 있다는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과 삶의 믿을 만한 안내자로 삼는 생각도 거절해야 합니다.

1. 기록 안 된 사도 가르침은 실제로 있었다
2. 그 당시엔 기록된 말씀만큼 권위가 있었다
3. 하나님은 책으로 교회를 다스리기로 하셨다
4. 오늘 구두 전통 주장을 검증할 길이 없다
5. 그래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을 수 없다

선택하셨다.”

📜 3. 피할 수 없는 전통, 피해야 할 전통주의

그렇다고 성경 밖 전통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할 수 없습니다. 2,000년 가까이 교회는 교리를 표현하고 성경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는 표준 방식을 쌓아 왔습니다. 예배 순서가 좋은 예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명령하지만 정해진 예배 순서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라는 원칙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충족성(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있다는 가르침)을 어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일반 원칙 안에서 정하는 것이고, 정해진 순서 없이 드리는 예배도 성경은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말할 때 쓰는 '본체'와 '위격'도 성경이 아니라 철학에서 온 용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긍정하는 한 이런 말을 써도 됩니다. 다만 용어는 성경의 뜻을 정확히 담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잘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표준 용어를 제멋대로 다시 정의하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통은 비판적으로 살피되 존중해야 합니다. 피할 것은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다는 생각, 어떤 전통은 성경만큼 권위 있다는 생각, 전통을 성경으로 검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1. 성경 밖 전통은 불가피하고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2. 예배 순서는 성경 원칙을 적용한 정당한 전통
3. 삼위일체 용어도 성경을 긍정하는 한 유익
4. 표준 용어를 제멋대로 재정의하면 공동체가 혼란
5. 피할 것은 바뀔 수 없고 검증받지 않는 전통주의

> **고린도전서 14:40**
>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성경에 없는 예배 순서를 정할 근거 원칙
>
>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 4.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무엇을 위해 있나 — 네 가지 목적과 성경 속 신조

전통은 글, 신조, 신앙고백서, 공의회 성명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프레임은 그 목적을 넷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신자, 특히 세례받을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지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논쟁이 되는 문제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교사(때로는 교인)에게 교리 진술에 서명하게 해서 교회의 정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교회가 늘 하는 가르침 사역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가 논쟁거리입니다. 단, 첫째 목적에도 단서가 있습니다(각주). 사도신경처럼 세례 때 기본 신앙을 고백하는 짧은 문서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소요리문답 같은 긴 문서를 세례의 필수 교육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회심자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곧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 안에도 신조처럼 쓰였을 법한 본문이 많습니다. 구약의 쉐마와 맏물 고백, 신약의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 복음 요약, 초대교회 찬송으로 추측되는 본문, 목회서신의 “미쁜 말씀”들입니다. 이 본문들은 앞의 세 목적에 잘 들어맞습니다.

1. 신조의 목적: 교육, 세상 증언, 이단 경고, 서명
2. 앞의 세 목적은 정상적 가르침 사역이라 좋다
3. 네 번째, 서명으로 정통 강화하기가 논쟁거리
4. 긴 요리문답을 세례 조건으로 삼진 말 것(각주)
5. 성경에도 신조 같은 짧은 고백문이 많다

> **신명기 6:4-5**
> 유대인이 오래 신앙고백으로 써 온 쉐마
>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신명기 26:5-10**
> 맏물을 드리며 구원 역사를 고백하는 예배 고백문
>
> 5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민족이 되었는데 6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맏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로마서 10:9-10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는 구원의 고백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린도전서 12:3

성령으로만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함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2:11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3-7

속죄, 구약의 권위, 장사와 부활을 담은 복음 요약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빌립보서 2:5-11

성육신에서 승귀까지, 초대교회 찬송이나 고백으로 추측되는 본문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디모데전서 1:15

“미쁘다 이 말이여”, 교회에서 돌던 짧은 고백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3:1

미쁜 말씀의 또 다른 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디모데후서 2:11-13

미쁜 말씀의 또 다른 예

[11]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쁜 말씀의 또 다른 예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도행전 8:26-40

에티오피아 내시가 곧바로 세례받음(각주), 긴 교육 조건이 없었다

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

사도행전 16:25-34

빌립보 간수 가족이 그 밤에 세례받음(각주)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
> …

📜 5. 신약교회는 정통을 어떻게 지켰나 — 수동적 방식

성경 속 고백문들이 정통을 가늠하는 공식 잣대(네 번째 목적)로 쓰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가현설(예수님이 진짜 몸을 입지 않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이단)이 교회를 흔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고백은 분명 정통의 잣대였습니다. 그러나 교인이나 직분자가 되려면 이 문장을 공식 심사에서 고백해야 했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교리에 느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아주 강하게 꾸짖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머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도덕한 열매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초대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다른 죄처럼 다루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직접 대면하고, 교회가 조사하고, 멀리하거나 출교하는 징계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이나 나쁜 열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교인과 교사를 신뢰했습니다. 세례 때는 아마 “예수는 주시다” 정도의 고백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했으니 훈련과 검증은 있었겠지만, 공식 고백 문서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프레임은 신약교회가 적극적(예방적)이기보다 수동적(대응적)으로 정통을 지켰다고 보며, 이 모델을 오늘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는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 성경의 고백문이 서명 심사에 쓰인 흔적은 없다
2. 성경은 거짓 가르침을 매우 엄하게 다룬다
3. 거짓 가르침은 부도덕한 열매와 함께 간다
4. 초대교회는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로 대응
5. 예방적 서명 아닌 수동적 보호가 신약 모델

> **요한일서 4:1-3**
> 영을 분별하라, 가현설에 맞선 정통의 잣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2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잣대였지만 공식 서명 심사의 흔적은 없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신명기 18:20-22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엄한 판결

20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7:15-20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아봄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누가복음 6:26

모두에게 칭찬받는 거짓 선지자 경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1:13

거짓 사도에 대한 고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2:4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디모데전서 6:2-5

다른 교훈을 하는 자의 교만과 다툼

2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후서 3:1-9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

디모데후서 3:5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베드로후서 2:1-22

거짓 교사의 이단과 방탕을 함께 고발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

요한일서 4:1

말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계시록 16:13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한계시록 19:20

거짓 선지자의 심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10

거짓 선지자의 최종 운명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16

열매로 안다, 가르침과 삶의 연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18:15-17

개인 대면에서 교회 판단까지, 징계 절차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고린도전서 5:9-12

교회 안의 범죄자와 사귀지 말라, 출교

9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데살로니가후서 3:14-15

순종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되 형제처럼 권하라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요한이서 1:10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를 집에 들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3:2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함, 훈련과 검증을 전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 **6. 교인에게 직분자에게 서명을 요구해야 하나**

프레임은 신조로 정통을 지키는 일을 의무가 아닌 선택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니 교단마다 벌어지는 서명 논쟁은 지나치게 뜨겁다고 평가합니다. 교인에게는 신앙고백서 동의를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교회가 확인할 것은 '신뢰할 만한 신앙고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습관적인 죄로 스스로 부정되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39개조 같은 문서에 대한 동의를 더 요구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교육받은 특정 계층의 모임으로 만듭니다. 직분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정통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성경과 복음을 잘 모르면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서명은 그 능력을 확인하는 한 방법입니다. 다만 신약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서명이 '직분자는 정통이어야 한다'는 성경 원리를 적용하는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프레임 자신은 오늘도 신약의 수동적 방식을 권합니다. 후보자는 다른 감독에게 훈련받으며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사랑, 가르치고 돌보는 능력, 복음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고, 기도와 안수로 세워집니다. 그 뒤에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증명할 책임은 고소한 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두세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이 방식은 서명보다 더 틀리기 쉬운 것도 아니고, 거짓 고소까지 막아 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신앙고백서는 앞의 세 목적에는 훌륭히 봉사했지만, 서명으로 정통을 지키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프레임은 진단합니다. 엄격한 서명을 요구한 많은 교단이 자유주의로 무너졌습니다. 서명이 엄격할수록 속으로 의심을 숨기고 서명하는 유혹도 커집니다(각주). 또 성경을 연구할 시간을 신앙고백서 해석에 써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1. 서명은 선택 수단이지 성경의 의무가 아니다
2. 교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만 요구하라
3. 문서 동의를 요구하면 문을 닫는 것이 된다
4. 직분자는 유능하고 정통이어야 하나 방법은 열려 있다
5. 고소하는 쪽이 증명한다, 두세 증인 원칙

> **디모데전서 3:2**
>
> 직분자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함, 교인과 다른 기준의 근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4:14

장로회의 안수로 직분을 받음, 훈련 뒤 임명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신명기 17:6

두세 증인의 입으로 판결, 고소자가 증명할 책임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9:15

한 증인만으로는 정죄하지 못함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마태복음 18:16

두세 증인으로 확증하라, 교회 안에서도 같은 원칙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13:1

바울도 두세 증인 원칙을 적용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디모데전서 5: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받음

히브리서 10:28

두세 증인으로 율법 위반을 판결함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다." (교인에게 신앙고백서 동의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

📜 7. 서명을 한다면 — 엄격한 서명과 느슨한 서명

프레임은 서명 관행에 회의적이지만,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 이 관행이 곧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서명을 계속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고백서를 고칠 수 있을 만큼 서명 방식이 느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장로교(PCA) 안의 논쟁을 예로 듭니다. 엄격한 서명은 직분자가 신앙고백서의 모든 진술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소한 예외는 허용하되 그 예외를 가르치거나 설교하지는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PCA의 현재 방식은 '체계 서명'입니다. 모든 문장이 아니라 신앙고백서가 담은 성경 교리 체계의 주요 뼈대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더 자유주의 쪽 교단은 신앙고백서에서 '인도를 받는다'는 정도의 더 느슨한 방식을 씁니다(프레임은 이 방식을 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은 엄격한 서명이 성경의 충족성을 어긴다고 판단합니다. 신앙고백서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막으면, 실제로는 신앙고백서와 성경의 권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충족성이 교회에서 실제 의미를 가지려면 몇 가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오류를 교회에 알리고, 성경에 맞게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서명은 신앙고백서가 결코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1. 서명이 계속된다면 말씀이 고칠 여지를 남겨라
2. 엄격한 서명: 모든 진술에 동의해야 함

4. 엄격한 서명은 성경의 충족성을 어긴다
5. 고백서는 틀릴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

📜 8. 그래도 신조는 말씀을 전한다 — 성경 아래의 '이차적 기준'

비판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프레임은 강조합니다. 앞의 장들에서 그는 참된 설교와 가르침(35장), 그리고 신학(37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도 본질적으로 신학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과 일치하는 만큼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게다가 신조는 다른 가르침보다 더 무게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은사와 몸 전체의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합의는 하나님이 교리를 감독하라고 부르신 장로와 감독들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틀릴 수 있지만, 성도는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는 필요한 곳에서 이 문서들을 말씀으로 다시 살피고 고쳐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 아래의 이차적 기준으로 존중해야 하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은 신조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신다
2. 신조는 신학적 가르침, 틀릴 수 있다
3. 교회 합의라서 개인 견해보다 무게가 크다
4. 세대마다 말씀으로 다시 살피고 고쳐야 한다
5. 성경 아래의 '이차적 기준'으로 존중하라

> **히브리서 13:7**
> 말씀을 전한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떠난 이들의 권위도 존중
>
>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전통(파라도시스)
한 사람이나 세대에게서 다음으로 '넘겨져 내려온' 말이나 관행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뜻(사도의 복음)과 나쁜 뜻(사람의 전통)으로 모두 쓰입니다.

전통주의
전통을 고칠 수 없고, 성경만큼 권위 있으며, 성경으로 검증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정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경 66권의 목록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성경에 다 들어 있어서 다른 권위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신조 / 신앙고백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 함께 고백하는 문서입니다. 신조는 사도신경처럼 짧고,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길고 자세합니다.

신앙고백서 서명
목사나 장로가 될 때 신앙고백서를 자기 신앙으로 받는다고 공식 서약하는 일입니다.

엄격한 서명은 고백서의 모든 문장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체계 서명은 고백서가 담은 성경 교리의 큰 뼈대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가현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예전
예배의 순서와 형식입니다.

이차적 기준
성경이 최고 기준이고, 신앙고백서는 그 아래에서 성경을 따르는 만큼 기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좋은 전통은 사도가 넘겨준 복음이며 지금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성경 자리에 올리면 말씀을 폐하게 됩니다.
- 성경 밖 전통은 피할 수 없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으로 검증받아야 하며, 고칠 수 없는 전통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교육, 세상 증언, 이단 경고에 훌륭히 쓰입니다. 그러나 서명으로 정통을 지키는 일은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선택 수단입니다. 교인에게는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서명을 계속한다면, 말씀이 고백서를 고칠 수 있을 만큼 느슨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엄격한 서명은 성경의 충족성을 어깁니다.
- 신앙고백서는 성경 아래의 이차적 기준입니다. 교회 합의라서 개인 견해보다 무게가 있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0편 ·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 해석의 규칙과 최종 재판관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